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제1307호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올해 수능, 코로나19 확진자도 동일 시험장...점심은 별도 공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6일 대구 북구 매천고등학교에서 한 고3 수험생이 후배들이 나눠준 합격부적을 손에 쥐고 공부를 하고 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점심도 별도의 분리 공간에서 먹도록 권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오는 16일 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시험실에서 응시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격리대상자를 위해 전년도에 설치했던 별도 시험장, 분리 시험실, 병원 시험장은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는다. 방역을 위해 점심시간에 사용했던 수험생용 간이 칸막이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확진자가 일반 수험생과 다른 공간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별도의 분리

'킬러문항 배제·의대 열풍' 등으로 재수생 크게 늘어

공간이 마련된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마스크 착용과 함께 분리 공간에 서의 식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총 10만7천423명으로 전년보다 658명 늘었다. 재학생은 5만7천293명(53.3%)으로 전년보다 5천91명 감소했지만, 졸업생은 4만6천661명(43.4%), 경정고시 등은 3천 649명(3.2%)으로 전년보다 각각 5천262명, 487명 늘었다.

졸업한 수험생은 작년보다 12.7% 늘어 예년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이는 정부의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 배제로 올해 수능이 쉬운 수능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나오면서 재수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제기된다.

'의대 열풍'으로 의대 진학을 꿈꾸는 반

수생 등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 수험생을 위한 편의 제공 시험장 4곳을 포함해 230곳의 시험장과 4천669실의 시험실을 운영한

다. 올해는 소년수형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남부교도소에 설치해 12명의 수형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본인의 시험장과 수험표는 오는 15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과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반드시 확인해 당일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수능 날 오전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져가면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 날 오전 7시 30분 까지 시험장 안에 위치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야 한다. 수능 날 시험장에 전자 기기를 가져오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 김성오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 문화제

스토킹 피해자 즉시 보호하고, 2차 피해 없도록 조사 신중해야

여가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발간해 공공기관 배포

스토킹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속 기관의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 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위해 발간됐다.

표준안에는 스토킹 예방 교육 운영안을 비롯해 스토킹 사건 처리 기구 운영안,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각 기관이 스토킹 피해를 인지했을 때 초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 금지,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 내용 비밀 유지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기관장이나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 기관

에 사건을 이관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격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이 강조됐다.

고충 상담원이 피해자를 상담 과정에서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고충을 접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피해 사실을 사소하게 취급하는 행위 ▲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하는 행위 ▲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피해자나 신고자, 조력자 등에게 보복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표준안 11조를 보면 보호조치를 신청한 이에게 파면이나 해임, 강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를 비롯해 임금이나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폭언 등을 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이밖에 각 기관장이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치료·상담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여가부는 각 공공기관에 이번 표준안을 토대로 관련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사건 발생 시 단계별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매뉴얼을 올해 안에 보급할 계획이다. / 송진영 기자

김기현, 측근에 "의원으로서 큰 영광 다 이뤄"...향후 거취 주목

'1기 지도부' 수석대변인 지낸 유상범 "여러 고민할 것으로 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고 말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김기현 1기 지도부' 수석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김 대표의 울산 출마 포기를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것으로 안다"며 김 대표가 과거에 자신과 대화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종친, 친윤(친윤석열) 의원 등 주류를 겨냥해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힘지 출마를 공개 요구했고, 자연스레 김 대표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울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4선 의원이다.

유 의원은 김 대표가 당시 당 대표, 원내대표, 울산시장 등을 두루 거친 과정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제는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에서 김 대표에게 경기 김포 출마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참 뜬금 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포가 '메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은 스스로 짹 벗어나고 갑자기 김 대표의 김포 출마, 전혀 연계점이 없지 않나"라며 "적절치 못한 공격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김포 카드도 누군가는 또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당 대표가 총선을



의원총회, 김기현 대표

지휘하는 측면을 항상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 가지 수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박현준 기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세무상담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 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尹 “GTX 완공 당기겠다…김포골드라인 타봤는데 정말 힘들어”

“A·B·C 노선 빠르게 완공…D·E·F는 재임 중 준비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시스템이 빨리 개통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성 동탄역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김포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 번 탔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내년 3월 말 개통 예정인 GTX-A 열차 안에서 열렸다.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명, GTX-A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거론하며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던 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 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내년 초, C 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은 올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A·B·C 노선은 각각 평택·춘천·천안아산까지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 “초고속 급행 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며 “광역급행 교통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A·B·C 노선을 빠르게 완공하고, 김포에서 출발해 수도권 남부

를 동서로 연결하는 D 노선, 인천에서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E 노선, 수도권 거

점 지역의 순환 노선인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TX 초기 예상 요금이 4천원 정도로 비싸다고도 언급 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주머니 사정에 부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이용하는 분들에겐 20%, 등하고 청년에겐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에겐 최대 53% 할인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GTX의 경제 효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GTX는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이동 편의뿐 아니라 부동산·산업 경제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춘천권까지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하고, 주택 수요 분산으로 집값도 안정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GTX 건설에 따른 직접 고용 효과가 21만명, 생산 유발 효과가 30 조원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직접적 효과 말고도 전후방 경제산업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간담회장 곳곳에는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팻말이 놓였다.

대통령실은 GTX 외에도 3개 광역철도 (8호선 별내선, 신안선, 7호선 도봉산~옥정)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경찰서 나서는 남현희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10시간 조사 질문에 묵묵부답

전청조 사기 공범 고소 1건
접수돼 피의자 전환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남씨를 전씨 공범으로 고소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질 거란 판단에서 남씨를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억여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송파경찰서를 집중 관

자정을 넘어 0시 7분께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온 남씨는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피해자란 입장에 변함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씨와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씨와 공범으로 고소된 건이 있어 남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필요하면 (전씨를 송치하기 전) 대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전날 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그동안 전씨를 사기로 고소한 15명은 남 감독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최근 1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전씨에게 이용당했다.”

/ 이윤성 기자

검찰 “이재명, 위례사업서 게리맨더링하듯 부정·편파 만들어”

‘윗선’ 부각·‘적극 개입’ 형사적 책임 강조…“지시 없이 직원 거짓말 불가능”



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3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 결탁했다면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향변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당시 시장인 이 대표를 겨냥해 ‘윗선’임을 부각하면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시·개입해 사업을 좌지우지했다는 책임론을 강조하는 맥락이다.

검찰은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면 유동규를 통해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은폐한 뒤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반대에도 우여곡절 끝에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첫 사업에서 민간업자 남욱을 임의로 지정하는 게 가능하나”며 “시장으로서 민간업자와의 결탁을 추궁하는 시의회의 비판을 이길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실제로 2013년 11월 위례사업 공모를 시작하자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강한 질책이 있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등이 아예 다른 민간 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정의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마치 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을 하듯이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3년 10월경 LH와 부지협

상에 참여한 성남시 고위·실무 공무원은 (사업이 공고된 11월 이후) 의회에 출석해 사업 진행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이 이 대표나 정진상 실장의 지시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에 대해 “위례신도시 사업 자체를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성공해야 했다”며 “남욱을 내정한 동기는 그가 약속한 2014년 선거 지원으로, 선거자금, 언론보도, 가짜뉴스 댓글 작업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공약 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혼란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데 이를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 조원석 기자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홍익표 “與 편가르기 정치에 중독…국회 균형발전 TF 설치해야”

‘5극 3특 메가시티’ 강조…공매도 금지에 “총선용 포퓰리즘 평가 지배적”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김영삼 정부 아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알박한 총선 전략을 위해 폐기할 수는 없다”며 “그 자체로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회에 국가 균형발전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협력을 다시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

권·호남권을, ‘3특’은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말한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적용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관련해선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 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 여당에 촉구해 왔다면 “정부 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 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의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리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며 “김 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현준 기자



김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원장

與 “은행들, 고금리 돈잔치·이자장사”

서민금융지원 촉구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장은 7일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은 돈 잔치와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듯 중소기업,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활동은 축소하면서 은행들은 300~400%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의 1인당 평균연봉은 1억원이 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은행의 이자 장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

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지난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 관행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신용대출 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게 각별히 쟁여달라”고 말했다.

/ 오은성 기자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지연에 사퇴…“尹정부 방송장악 희생양”

“적격성 판단 없이 임명 7개월 미뤄…당에 후임 추천 중단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일 임명이 7개월 넘게 지연되는 것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출신인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짓으로 내정하고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최 후보자 추천안을 가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월 7일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였다”며 “임명반지 못해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단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에는 후임자 추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적격, 부적격 판단도 안 하고

임명을 7개월 7일을 미뤘는데 더 이상 위원 추천이 필요한가”라고 했다.

또 “법제처 유권 해석이 6개월 넘게 걸릴 일인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을 땐 1주일 걸렸다”며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비겁하다. 부적격이면 부적격이라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법제처에 최 후보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재직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는 아직 결론을 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지 않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제가 처음 방통위에 들어가려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2인 독임 체제가 굳어져 제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들리리 서게 되는 것”이라며 현 ‘2인 체제’ 방통위 운영도 비판했다.

/ 노진수 기자

윤재옥 “野 탄핵 중독 금단현상…헌법과 민주주의 우롱”

“총선 200석 승리 공공연히 언급…오만에 빠진 것 아닌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임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체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돼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침례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다수 의석을 밀어붙이는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생이 우선이다. 정체 경쟁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 송유영 기자

이탄희, ‘꼼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비례대표 47석, 제3·4·5당이 가져가게 해야”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위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의 토론하는 이탄희

을 담고 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당 회계보고를 보면 2021년도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210억원이고,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85억원이었다.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양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여

합당하면 각각 105억원, 92억5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깎이는 셈이다.

이는 양당이 한 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70%에 해당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결국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할 동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 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일하기 경쟁을 해야 거대 양당도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

/ 김유정 기자

SAMSUNG

Galaxy Z Flip5

SAMSUNG

Galaxy Z Flip5

자세한 제품 정보는
상영국에서 확인하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 플렉스 모드가 활성화되는 각도는 75°-115°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전면화면 풍화하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 촉구' 대규모 집회에 관제동원 의혹

일부 전북도의원, 지자체장에 “사람 모아달라” 부탁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웰기대회가 오는 7일 국회 앞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부 전북도의원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인원 동원을 부탁해 관제 동원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 본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 총연합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참여 단체들은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지역 관련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78%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



구호 외치는 전북도의원들

본(SOC) 예산 정상화와 대회 파행에 따른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전북 희생양' 만들기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도의원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인원 동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원은 "이번 대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장에게 협조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례적인 수준이었고 관제 동원은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인원동원을 부탁받은 지자체장은 "사람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듣고 난감했

다"며 "대회와 관련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에 정중히 고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 참석을 위해 전북 도내에서 관광버스 160여대가 출발한다. 4천여명이 상경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관계자는 "대회는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기 때문에 일부 도의원이 인력 동원을 부탁했는지는 잘 모른다"며 "경비는 기업 후원과 모금, 참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1만 원 이상의 참가비를 걷어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북도의원은 "민심이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규모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그래도 만약 인력 동원령이 사실이라면 집회의 의미가 빼감되고 순수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송진영 기자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 13일 심리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 지정…이날 결론 가능성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주 2회꼴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합되지 않으면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고 김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신속히 1심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대장동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결론을) 밝힐 것이다"고 밝혔다.

/ 박정호 기자

"대전 교사 가해자 이사왔다" 학부모 반발…단체 행동 움직임도

지난 4일 지역 커뮤니티에 가해 학부모 목격담 올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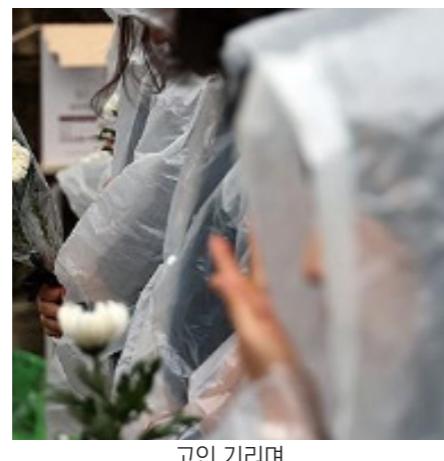
악성 민원을 겪다 숨진 대전 교사의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대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는 주장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퍼지면서 이 지역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A 지역 커뮤니티에 숨진 교사의 가해자 중 한 학부모와 학생이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학부모 B씨의 자녀는 지난 3일 A 지역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고, 이곳에서 학원에 다니고 있다.

작성자는 "B씨가 학원에 봉어빵 사들고 와서 다 같이 먹으라고 했다네요"라며 "하루아침에 엄마 없는 애들 만들어놓고 네 자식은 소중하니?"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B씨 자녀에 대해 "친구 목 조른 이 애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말하고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고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분노조절장애 같은 말이 나왔는데 일주일 차 학원 생활에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



고인 기리며

했다.

이에 다른 학부모들은 '너무 충격이네요. 왜 하필 우리 동네로…', '그 아이 담임선생님이 제일 걱정되네요. 안 변할 텐데…'라는 댓글을 남기며 동조했다.

B씨에 대해 분노한 학부모들 중심으로 현수막을 내걸거나 시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현수막 제작 등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 양승호 기자

경찰, '징용피해 보상금 기부 약정' 고발사건 각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 단체가 맺은 '보상금 기부 약정'에 범죄 혐의 점이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서울지역 보수단체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관계자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고발인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 등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배상금 또는 위로금의 20%를 법률 대리인을 알선해준 시민모임에 교부하는 약정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단이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고, 보상금 또는 위로금의 일부 기부를 피해자들이 먼저 제안한 정황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



지원 단체와 '보상금 기부 약정' 맺은 양금덕 할머니

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해당 약정은 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012년 10월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배소송 원고인 양금덕·이동련·박해옥·김성주·김중곤 씨 등 5명과 맺었다.

약정은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역

사적 기념사업·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고발장은 약정 내용의 정당성을 두고 일부 언론사와 시민모임 간 공방이 벌어졌던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수사는 피고발인들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맡았다.

/ 황순길 기자

.
.

갓생을 찾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갓대있게**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구장

나는 농업 농촌에서
갓생구장
JOB아라!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직업으로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태국 정부, '韓 입국불허 논란'에 자국민 불법취업 단속 강화

노동부 장관 "특별팀 공항 등서 활동...한국 당국과도 협력"

최근 태국에서 '한국 입국 불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태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취업 단속 강화에 나섰다.

6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켓 앗착켓쁘라간 태국 노동부 장관은 태국여행사협회(TAA)에 태국 관광객의 한국 불법취업 방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날 밝혔다.

피켓 장관은 많은 태국인이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여행사의 눈을 피해 불법 노동자가 되며, 계약서 없이 한국 어를 배우지도 않고 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태국인 불법체류 노동자가 10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피켓 장관은 태국인의 한국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방콕 수완나품공항과 돈므앙공항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

그는 한국 출입국관리소와 상호 이익이 되도록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소셜미디어(SNS) 광고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단속팀도 운

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태국 SNS에서는 한국 입국이 거부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화제가 되면서 불만 여론이 일었다.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현지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

데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도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법체류와 전자여행허가제(K-ETA) 등 입국 관련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며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15만7천명 규모이며, 태국인 총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라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사란 차련수완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과 만나 조만간 영사국장회의를 열어 태국인 불법체류와 한국 입국 불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 박병호 기자



2023년 10월 28일 다카서 열린 방글라데시 애권 시위

방글라데시 '정권퇴진 요구 시위' 지속 “1주새 애권 8천명 체포”

내년 1월 총선을 앞둔 방글라데시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1주일 동안 약 8천명의 애권 인사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최대 일간지 '프로토트 알로'가 자체 전국 취재망을 통해 취합한 결과 최근 1주일 새 최소한 7천835명의 애권 인사가 체포됐다고 전날 보도했다.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등 애권은 지난해 9월부터 세이크 하시나 총리 정부 사퇴 및 총선 관리용 중립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수도 다카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숨졌다.

경찰은 경찰관 사망을 계기로 애권 활동가 수천 명을 체포하고 최소 162명에 달하는 애권 지도자들을 경찰관 살해 혐

의로 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애권 진압에 나섰다.

경찰 대변인 아비르 시디크 슈브라는 체포된 애권 인사들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체포된 이들이 범죄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시위 이후 경찰관 1명을 포함해 최소한 4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BNP 측은 애권 활동가 9명 이상이 사망했고 3천여명이 부상했다고 반박한다.

1996년부터 5년간 총리를 지낸 데 이어 2009년 두 번째로 총리직에 올라 지금 까지 집권 중인 하시나 총리는 경제는 성장시켰지만, '절권통치'를 통해 애권과 인권단체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 흥민우 기자

7일부터 韓中간 공문서 인증 간소화

“중국대사관 안 가도 돼”

오는 7일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의 공문서 인증 절차가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된다.

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3월 가입한 아포스티유 협약을 7일부터 정식 적용함에 따라 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국가 간 문서를 사용할 때 '영사 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

유 인증'을 적용한다.

아포스티유 협약의 정식 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5년 최초로 발효됐고, 한국에서는 2007년 7월부터 효력이 생겼다.

영사 확인과 아포스티유 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국 공문서 확인 절차다. 예를 들어 그간 한국에서 발행한 문서

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외교부(재 외동포청) 영사 확인과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영사 확인을 거쳐야만 했다.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 역시 중국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모두 마친 뒤에야 한국에서 활용 가능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됨에 따라 7일부터는 한국 발행 문서는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의 공문서도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 없이 중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한국에서 효력을 갖는다.

주중대사관은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중국에서 체류 자격 획득, 취업, 유학, 사업 등 해외 진출 활동을 위해 중국에서 사용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는 원칙적으로 중국 입국 전 한국 아포스티유 인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만 공문서 중 우리 공관을 통해 전자 발급 가능한 문서는 한국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희성 기자

관심 밀려난 우크라전...젤렌스키 'F 욕설' 쓰며 푸틴 맹비난

美NBC 인터뷰서 “망할(******) 테러리스트 푸틴” 언급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 도중 욕설까지 사용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테러리스트라고 맹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NBC 방송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영어로 "우리는 이 망할(******) 테러리스트 푸틴에게 자유를 넘겨줄 준비가 안 됐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무엇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느냐'라고 묻자 "힘과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서 평생 싸우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가가 너무 크다. 전쟁은 최고의 영웅, 남자, 여자, 아이들을 데려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 영어로 내뱉은 욕설은 영상에서는 '呻' 소리로 묵음 처리됐다. 그는 미국 및 유럽

연합(EU)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평화협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승인해야 하는 기한이 언제인지를 질문받자 "우리에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는 그저 시간을 잊고 있을 뿐이다. 시간은 매우 값 비싸므로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강명성 기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자랑스럽다면 서도 방공망 없이 방어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속해 공중을 지배하고 있으며 방공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의 진군은 느리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승인해야 하는 기한이 언제인지를 질문받자 "우리에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는 그저 시간을 잊고 있을 뿐이다. 시간은 매우 값 비싸므로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강명성 기자

도요타, 88년만에 세계 생산량 3억대 돌파...최다 차량은 코롤라



도요타 코롤라

신차 판매량 세계 1위 업체인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1935년 자동차를 처음 내놓은 이후 88년 만에 누적 세계 생산량 3억 대를 돌파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1억8천52만 대, 해외에서 1억1천960만 대를 각각 생산했다.

도요타는 2012년에 누적 생산량 2억 대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생산량 1억 대를 늘렸다.

닛케이는 "이 기간에 도요타는 3.5초마다 자동차를 한 대씩 생산했다"며 누적 생산량이 1억 대에서 2억 대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과 비교하면 4년이 짧아졌다고 전했다.

도요타가 가장 많이 만든 차량은 1966년 출시한 코롤라로, 생산량은 약 5천339만 대로 집계됐다.

도요타는 2000년대 후반부터 해외 생산량이 국내보다 많아졌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265만 대, 해외에서 637만 대를 각각 생산했다.

/ 권정철 기자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항상 웃을 수 있게

겪어보면 다른 보험 현대해상

43 Hi 4643

44 Hi 4644

45 Hi 4645

46 Hi 4646

47 Hi 4647

48 Hi 4648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 KB증권이 함께 합니다

CHANGE KB
OUR LIFE



Change our life
플로깅!

'22 양양 인구해변
'23 부산 해운대

깨비증권 그린로드
(도심 숲) 조성!

'22 난지 캠핑장
'23 천왕산 캠핑장

자원순환 및
탄소저감 시행!

'22 제주 푸른컵(공유컵) 제작
'23 사내 폐가전 회수, 재활용

KB 증권

해수부도 '물가안정대응반' 가동...천일염·고등어 등 '7종 관리'

'물가안정책임관' 차관 아래에 현장·일일점검 2개반 가동

해양수산부가 작년보다 가격이 15%가량 오른 천일염 등 수산물 7종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가 안정대응반'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박성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하는 물가 안정대응반을 구성해 물가 관리품목인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 등 모두 7종의 물가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품목은 7종이지만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물가 안정대응반은 일일 기격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현장 중심 상황 점검 등을 담당한다. 해수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물가안정책임관 아래에 현장점검반과 일일 점검반이 있는데 각각 수산정책실장과 수산정책관이 반장을 맡았다. 각 반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수산물 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왼쪽 첫번째)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현장점검 및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가를 관리해왔지만 앞으로 고삐를 단단히 쥐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유통정책과에서 수산물 수급과 물가를 관리해왔다.

수산물 물가는 지난 2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작년 같은 달 대비 여전히 높아 예의주시할 필요

가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3월 7.3%에서 지난 10월 3.0%로 낮아졌다. 해수부는 물가 관리품목 일일 모니터링과 장·차관 중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정부 비축 물량 방출, 할인행사 등으로 수산물 물가를 절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송진영 기자

해수부는 김장 주재료 중 하나인 천일염 가격을 작년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1만t(톤)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지난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해수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국산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5천t을 우선 공급해 현재 시중 가격(10kg 기준 약 3만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 판매한다. 해수부는 국산 비축 물량 외에도 수입산 천일염을 5천t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굵은소금 5kg 소매가는 1만3천564원으로 1년 전의 1만1천828원과 비교해 15% 비싸다. 평년(8천435원)과 비교하면 61% 높은 가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요일(8일)쯤 비축 물량이 시중에 본격적으로 깔리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GTX-A 탑승하는 원희룡 장관

국토부, GTX-A 내년 3월말 조기개통 K패스는 상반기 도입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내년 3월 말에 조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경기 화성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간담회'를 개최해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GTX-A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GTX-A 노선은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국토부의 첫번째 GTX 노선으로,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또 국토부는 GTX 연장 및 신설 노선에 대한 계획을 연말까지 정리해 발표하고, 8호선 암사역~별내역 연장·신안산선·7호선 도봉산역~옥정역 연장 3개 사업을 내년부터 차례로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황규철 기자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구권 1단계 사업을 비롯해 울산 태화강~송정, 충청권 1단계 사업 등을 적기에 개통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5개 선도사업도 2026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황규철 기자

금융위원장, MSCI 편입차질 우려에 "공매도 금지가 결정적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그게 꼭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당분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는 것이지, 공매도 하나

만 보고 공매도를 금지하면 (편입이) 안 되고, 하면 (편입이) 되고 이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신뢰 저하뿐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제도 개선을 했고 이 정도면 될 거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투자은행(IB)들의 행태라든가 그런 걸 보는 과정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사이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 문제를 제기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으로 전문가와 논의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 최진만 기자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되도록

고객 한분 한분의 모든 하루,
나아가 푸른 자연까지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ESG 경영
PEOPLE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PLANET 글로벌 기준의 친환경 경영 생태계 조성 등
PROSPERITY 디지털 혁신 기반 지속가능 투자 GOVERNANCE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조성

당정, 전기요금 '가정용·소상공인' 빼고 산업용만 인상 검토

한국전력[015760]의 재무 위기가 한계에 이른 가운데 여전 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서민경제 역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kW) 이상에 적용된다.

정부가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산업용만 인상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 스케줄과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으로선 총선을 불과 5개월 앞 두고 공공요금 인상에 민감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더 이상 한전의



전기료 추가인상 가능성

재무위기가 빚을 내 빚을 갚는 여력도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도 작용했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전에 따르면 작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한 데 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가량이었다.

판매액도 산업용이 53%에 달했지만,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7%가량

이었다.

따라서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한전 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전의 재무 구조 완화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력 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 박선영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20만명 "가입 놓쳤다면 이제라도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이달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제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가 20만 명을 넘겼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됐음에도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단은 전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문화예술용역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지면 1건 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사

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자진해서 소급 신고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제도권 안으로 부담 없이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주혁 기자



AI 풀스택이면 가능합니다

기업마다 필요한 AI가 다른데,
맞춤형으로 AI를 쓸 수 없을까?

KT의 AI 풀스택이면 가능합니다
AI 전문 반도체를 만드는 리밸리온,
산업별 맞춤형으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레와 함께
유연하게 쓸 수 있는 KT 클라우드로
KT만의 AI 풀스택을 완성했으니까요

어떤 기업이든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AI
KT가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꼭 맞춤 KT AI
DIGICO KT



서울시, 김포 등 아우르는 '메가시티' 검토…TF 만들어 논의

오세훈, 김병수 김포시장 면담…‘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키로

서울시와 김포시가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서울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김 시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서울과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서울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약 40분간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시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일단 굉장히 만족하다”며 “공동연구반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을 짚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김포를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해안 항구 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도 언급했다.

오 시장도 이날 면담을 마치고 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직은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뭐라 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약속하고 있다.

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해안 항구 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후에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와 관련해서는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등에서 이미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 편입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입장 표명하는 곳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구리시에서도 연락이 있어서 조만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백경현 구리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

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일단 김포시와는 공동연구반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후에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와 관련해서는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등에서 이미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 편입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입장 표명하는 곳이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구리시에서도 연락이 있어서 조만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백경현 구리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미리 그런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시작하겠다. 특히나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외부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뿐 아닌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도시들을 모두 아우르는 ‘메가시티’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데는 적어도 한두 달 이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을 전후해서 상당히 진전된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변 지자체의 반대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 편입 방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돌출된 이슈가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화될 수 있다”며 “어쩌면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쓰레기 매립장 등을 김포에 떠넘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주민 기피 시설을 (편입이)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기거나 할 생각은 없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서울시민들의 ‘생활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송원기 기자



강원대 한국어 강사들 “열악한 처우 개선하라”

강원대 한국어 강사들

“강의 외 업무, 소정근로시간 인정하라”

강원대학교 국제교류처(전 국제어학원) 한국어 강사들이 강원대를 상대로 강의 외 업무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고용안정·처우 개선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강원대는 2018~2019년 한국어 강사 4명을 재채용 과정 등을 거치며 해고했다. 이에 강사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음’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강원대는 강사들을 복직시킨 뒤 2019년 5월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됐고, 이후 강사 2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노동자성’ 인정 여부였다.

강원대는 강사들이 1주 동안 소정근로 시간에 뛰어넘어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제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없다고 보는 등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강의 시간과 강의 외 업무까지 모두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 황수현 기자

거창군수 “간부공무원 성추행 의혹 군민께 사죄…재발방지 약속”



구인모 거창군수 담화문 발표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는 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간부 공무원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군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군수는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 공무원의 이러한

방위산업 밀집지 경남, 태국 국제방산전 시회에 홍보관 운영



경남도는 6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태국 D&S 2023 국제방산전시회’에 지역 7개 방산기업이 참여한 경남방산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국 D&S 2023 방산 전시회는 동남아 주요 방산 전시회 중 하나다. 우리나라, 미국, 이스라엘, 독일, 중국 등 50개국 500여 개 업체가 올해 행사에 참석했다고 경남도는 소개했다.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는 수옵티스 등 지역 7개 중소방산기업

행위로 군 명예가 실추되고 관계 기관에 피해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좋은 일인 나쁜 일인 군수 책임으로 제가 대신해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거창군 간부 공무원이 20대 여경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후 군은 긴급 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으며 관련 간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

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4대 폭력 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 공직자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성 관련 가치관·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성 관련 범죄 예방 특별대책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 공직자 복무 기간 확립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 노건우 기자

청주 쪽쪽가무시증 환자 급증 “야외활동 시 주의”

가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주에서도 쪽쪽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 쪽쪽가무시증 환자는 지난달 4주차 9명에서 이달 1주차 16명으로 77.8% 늘었다.

가을철 주로 활동하는 텔진드기 유충에 의해 감염되는 쪽쪽가무시증은 1~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가까운 야외에서 사전에 진드기 기피제를 구매해 옷소매와 맨투단에 적정량을 분사하고 밝은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풀숲에 옷을 두지 않고 항상 둋자리를 사용하고, 거주지 주변의 풀숲도 제거해야 한다.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물린 자국을 발견하거나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 임성균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

NH농협금융

퇴직금,

불릴 줄

아는 사람은

NH투자증권 IRP

퇴직금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고!
퇴직연금은 NH투자증권입니다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종관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 전 상품설명서, [201]투자설명서, 친합법지구와의 및 약관을 반드시 위아래에서 비롭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기획·보험·판권·신용등급·이익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 세(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범위는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IPR은 예금보호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보호한도는 고객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투자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의 예금자에게 같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투자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입니다. ※ETF·리츠 배당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최선을 다한 끝에

시작한 첫 사회생활

비단던 일과 독립도 이루었지만

넉넉하지 않은 월급에

부담이 커던 학자금대출금

하지만 이런 내 부담을 덜어준

농협은행의 신용회복지원으로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희망이 되어준 은행



조록서리 신용지원
농어촌 학자금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NH농협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농촌 지역 청년 중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대출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BUSAN, KOREA |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김해시장 “부산 정치권 ‘메가부산론’ 전혀 현실성 없어”

부산 정치권 일부서 제기된 김해·양산 편입 희망론 일축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은 최근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에 펜스해 일부 부산 정치권에서 제기된 경남 김해·양산의 부산에 편입 희망 논란에 대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 시장은 6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입 기자들을 만나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메가 부산론’ 논란은 생뚱맞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고려하지 않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박완수 경남지사가 추진한 경남과 부산·울산 행정통합을 통한 큰 틀에서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방식으로 하나로 엮어지는 것은 맞지만 일부 지역의 특별지역 편입 발상 자체는 전혀 실현 가능성 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런 김해·양산의 부산 편입 희망을 담은 발상은 그야말로 정치 이슈화하려는 통합으로 비칠 수 있다”며 “50만명이 넘는 김해중에서도 동김해는 부산 생활권과 다소 가깝지만, 서김해인 장유와 진영 등은 경남 창원생활권으로 이들에게 부산 생활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부산지역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경태(부산 사하) 의원은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해·양산의 부산 편입 추진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담은 ‘메가 부산론’ 주장장을 각각 폐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 차민성 기자



6일 교육부 주최 ‘유·보 및 유·초 이음교육 전국 현장 공감 공유회’가 열린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와 유치원 교사 등이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경북도, 26개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추진



절기상 입동(立冬)을 앞둔 1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경산캠퍸스 민속촌 앞 논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온 박정희세마대학원 외국인 유학생들이 벼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6일 대구대에서 도내 26개 대학 글로벌 인재 담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업무 간담회를 했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 1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와 함께 관련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대학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우수 인재가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고 취업해 정착하도록 돋기 위해 지역 대학, 기업, 유학원, 각국 대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입국과 교육, 정주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교育부가 추진하는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유치를 추진하고 외국인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

유학생들에게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형 비자를 제공하는 해외유학생 계약학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유학생들이 경북 역사와 특성, 산업, 문화 등을 이해하도록 이론과 현장 중심 교육도 제공한다.

허윤홍 경북도 교육협력과장은 “지역 대학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학생 충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해외 인재들이 지역대학에 입학하고 나아가 지역 인재가 된다면 경북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노건우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제주 교원단체·유치원 교사

“졸속 유보통합 반대”

제주지역 교원단체와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정부의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정책에 대해 “졸속·밀실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오후 교육부 주최 ‘유·보 및 유·초 이음교육 전국 현장 공감 공유회’가 열린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 앞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 유치원 교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유보통합인가’, ‘유아학교 기준과 구체안 없는 유보통합 강행 중단하라’, ‘돌봄은 지자체에서 교육은 교육부에서’ 등 유보통합 강행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다.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지난 30년간 구조적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당장 2025년 전면 도입하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고 정체적 지원이나 예산 투

입에 대한 약속도 없이 도입한다고만 하니 현장의 혼란과 불안만 커지고 있다”며 “졸속·밀실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21년차 유치원 교사 강모씨는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2025년에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사들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소문으로 불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교사노조 소속 5년차 유치원 교사 강모씨도 “졸속·밀실 행정을 막고자 나섰다”며 “현재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소통 창구를 더 많이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 3~5세 유아는 학교 교육에 포함돼야 하며, 유보통합은 반드시 유아 학교 체계를 갖추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현주 기자

송파구 ‘인허가 민원 원스톱서비스’ 1년 새 2만9천여건 처리

“주민 A씨는 음식점을 열고자 송파구청을 찾았다. 식품영업 신고를 위해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고 건축물대장 표기 변경을 위해 건축과 또는 주택관리과를 별도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인허가 민원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민원행정과 한 곳만 방문한 뒤 나중에 서류만 찾아가면 됐다.”

서울 송파구가 ‘구청 인허가 민원 원스톱 관리시스템’ 도입 1년을 맞아 6일 소개한 사례다.

이 서비스는 서강석 구청장이 취임 후 지시사항 1호로, 지난 해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당시 여관과 별도 신설, 하하호호 민원동행서비스’도 구민 체감형 행정혁신 방안으로 함께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민원여권과를 민원행정과와 여권과로 나누고, 민원행정과에 민원처리팀을 신설해 ‘인허가 민원 전담 원스톱 창구’를 운영해왔다. 총 450종의 인허가 민원을 민원행정과 한 곳만 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원스톱서비스로 처리된 인허가 민원은 2만9천여 건에 달한다고 구는 집계했다.

구 관계자는 “구청 직원이 민원인의 대행인이 되어 직접 뛰어 다니며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니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는 등의 반응을 얻고 있다. 민선8기 1주년 구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민원행정시스템 변화에 대해 구민 89.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최초로 여권과를 별도의 부서로 신설하고 온라인 예약을 통해 대기시간을 줄인 점과 어르신·장애인·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하하호호 민원동행서비스, 민원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QR코드 민원서식 작성시스템’ 도입 등도 주민 호응을 얻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구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구민은 민원인이 아닌 송파구의 주인”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친절과 섬김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지영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 “인천시장이 김포에 대해 왈가왈부할 바 아냐”

유정복 시장 ‘김포 서울 편입은 정치소’ 발언에 반박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정치소’라고 비난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 “김포 문제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김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유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인천시장이 김포에 대해 왈가왈부할 바가 아니라 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경기도가 북도·남도 분리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런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동연 경기지사에 책임을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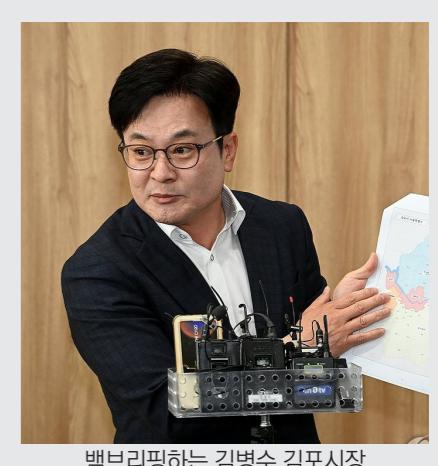
김 시장은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

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로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험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국민의 힘도 정면 겨냥했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방시 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별도 추진 기구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 손현수 기자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미래를 기대해

5th Anniversary 2018 -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놀라운 도약의 지난 5년, 그리고 더 크고 더 높게 성장해
新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해.

50th Anniversary

한국해양진흥공사 2030 미래상

01 총 자산 20조원

02 선박급용 공급 1위

03 스마트 해운 물류 통합 플랫폼 구현

04 ESG 공공부문 최우수 등급

“먼훗날 네 여정은
자금보다 훨씬 즐겁고
더 안전할거야.”

더 즐겁고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기술이 만듭니다

HYUNDAI
MOBIS

MLB 골드 글러브 품은 김하성, 10일 실버슬러거까지 도전

골드 글러브·실버 슬러거 동시 수상 아시아 선수는 이치로가 유일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골드 글러브를 품은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이제 MLB가 공인한 '수비 달인'이다.

김하성이 6일(한국시간) 받은 골드 글러브는 양대 리그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 수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시즌 김하성은 1루를 제외한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며 물 샘 틈 없이 샌디에이고 내야를 지켰다.

2루수로 가장 많은 106경기에 출전해 856%이닝을 지켰고, 3루수(32경기 253 1/3이닝)와 유격수(20경기 153 1/3이닝) 자리에도 팀이 필요할 때마다 출전했다.

실책 총수는 7개(2루수 4개, 3루수 1개, 유격수 2개)다.

골드 글러브는 수비만 평가하며, 시즌 이 끝난 뒤 각 팀 감독과 코치가 선정해 투표한다.



2023 MLB NL 유트리티 실버 슬러거 김하성

여기에서 2013년부터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세이버메트릭스 수비 지표를 일정 부분 평가에 반영한다.

아시아 출신 선수가 골드 글러브를 받은 건 스즈키 이치로(2001~2010년 10년

연속 수상) 이후 김하성이 처음이다.

이치로는 외야수로 뛰었으나, 김하성은 아시아 내야수 최초의 골드 글러브 수상이다. 김하성은 내친김에 포지션별 최고 공격력을 뽐낸 선수에게 주는 실버 슬러거까지 도전한다. 김하성은 10일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인 실버 슬러거에서 베츠, 코디 벨린저(시카고 컵스), 스펜서 스티어(신시내티 레즈)와 함께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후보로 뽑혔다.

한국 선수 중 실버 슬러거를 받은 선수는 없고, 아시아 출신으로는 이치로(2001·2007·2009년)와 오타니 쇼헤이(2022년)가 받았다. 한 해에 골드 글러브와 실버 슬러거를 동시에 석권한 아시아 선수는 이치로가 유일하다.

골드 글러브가 '황금빛 장갑'이 상징이라면, 실버 슬러거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루이빌 슬러거' 방망이를 받는다.

2022년부터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투수 부문 실버 슬러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유틸리티 부문이 채웠다.

사실 김하성의 실버 슬러거 수상은 쉽지 않다. 이번 시즌 타율 0.260, 17홈런, 60타점, 38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749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으나 경쟁자 성적이 워낙 좋다. 베츠는 타율 0.307, 39홈런, 107타점, OPS 0.987로 리그 최우수 선수(MVP)급 성적을 냈고, 벨린저는 타율 0.307, 26홈런, 97타점, OPS 0.881로 재기며 성공했다. 스티어의 성적은 타율 0.271, 23홈런, 86타점, OPS 0.820이다.

김하성으로서는 수상 여부를 떠나 포지션별 최고 공격력을 뽐낸 선수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 최준용 기자



지난 10월 17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한국과 베트남의 친선경기. 후반전 이강인이 팀 다섯번째 골을 넣은 뒤 손흥민 등과 기뻐하고 있다.

한국랭킹 7위 안성준, 문경새재배 정상

11년 만에 두 번째 우승



안성준(왼쪽) 9단이 박상진 7단을 꺾고 문경새재배에서 우승했다.

한국 바둑랭킹 7위 안성준(32) 9단이 문경새재배 전국바둑대회 정상에 올랐다.

안성준은 5일 오후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새재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문경새재배 전국바둑대회 오픈최강부 결승에서 박상진(22) 7단에게 264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이토써 안성준은 2012년 한국물가정보 배 이후 11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중고등최강부는 유수환, 초등최강부는 심효준(동교초6)이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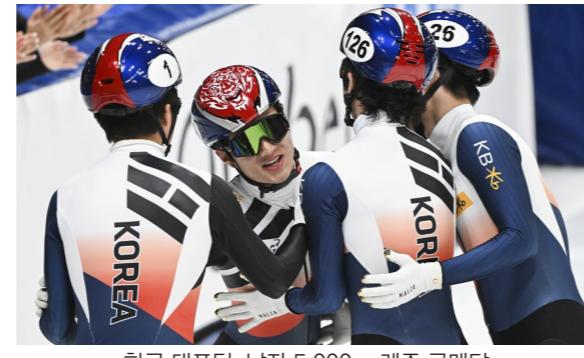
문경새재배는 출범 16년째를 맞아 총 예산을 2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특히 오픈최강부 우승상금이 3천만원으로 커지자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184명이 대거 참가했다.

일본에서도 프로기사 5명과 아마추어 1명이 참가해 시선을 끌었다.

/ 윤용성 기자

한국 쇼트트랙, 4대륙선수권 남녀 계주서 각각 금·은메달



박지원은 남자 1,000m서 은메달 획득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4대륙선수권 대회 남녀 계주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지원(서울시청), 김건우(스포츠토토), 이정민(한국체대), 장성우(고려대)는 6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주 라발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4대륙 선수권대회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7분13초143의 기록으로 우승을 합작했다.

/ 권도경 기자

2위 자리에서 호시탐탐 틈을 넘보던 대표팀은 결승선 까지 15바퀴를 남긴 시점에 1위 자리를 빼앗았다.

12바퀴를 남기고 캐나다에 역전을 허용한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졌지만, 각 주자가 격차를 조금씩 좁힌 뒤 매 바퀴 선두가 바뀌는 치열

한 레이스 속에서 박지원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이소연(스포츠토토), 박지원(전북도청), 박지윤(의정부시청), 심석희(서울시청)가 4분14초567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캐나다와는 0.054초 차였다. 줄곧 선두를 지켰던 여자 대표팀은 4바퀴를 남겨둔 시점에 캐나다에 추월을 허용하고 2위로 밀려났다.

남자 1,000m 결승에서는 박지원이 1분28초664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 권도경 기자

10월 명단과 거의 같은 선수 소집

골키퍼 송범근 5개월 만에 복귀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시작하는 2연전에 유럽파 최정예 멤버를 모두 불러들였다.

대한축구협회는 11월 A매치 기간 열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1, 2차전에 나설 선수 23명의 명단을 6일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싱가포르와의 맞대결로 2차 예선을 시작하며, 21일 오후 9시 중국 선전에서 중국과 원정 2차전을 벌인다.

내년 1~2월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앞두고 대표팀의 마지막 실전이기도 한 이번 2연전 명단엔 '캡틴' 손흥민(토트넘)을 필두로 꾸준히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받던 선수들이 대체로 선택됐다.

튀니지(4-0 승), 베트남(6-0 승)과의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지난달 A매치 기간과 명단이 거의 같다.

전체 인원이 10월 24명에서 이달 23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골키퍼 한 자리가 김준홍(김천)에서 송범근(소년 벨마리)으로 바뀌었고, 수비수 김주성(서울)이 빠진 것만 다르다.

손흥민 외에 주축을 이루는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

재성(마인츠), 황희찬(울버햄프턴), 조규성(미트윌란) 등 유럽파 선수들이 어김 없이 이름을 올렸다.

K리거 문선민(전북), 정승현(울산), 김태환(울산), 이순민(광주) 등도 포함됐다.

송범근은 5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다. 지난해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홍콩과의 경기에서 유일하게 A매치 출전을 기록한 송범근은 올해 6월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으나 이후엔 부상으로 발탁되지 못했다.

대표팀은 13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 소집해 목동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훈련을 진행하며, 16일 싱가포르전을 마치고 19일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소집일인 13일 오전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선수 선발 배경과 소집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축구협회는 전했다.

이번 월드컵 2차 예선에선 36개국이 4개 팀씩 9개 조로 나눠 경쟁해 각 조 1~2위 팀이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하고 2027년 아시안컵(사우디아라비아 개최) 본선 출전권도 받는다.

월드컵 본선에 나서려면 2차 예선을 통과한 18개국이 3개 조로 나눠 겨루는 3차 예선에서 조 2위 안에 들어야 한다. 3차 예선에서 조 3위나 4위가 되더라도 4차 예선에서 한 번 더 본선행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오창수 기자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 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액의 30% 상당 달레풀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 16.5% 공제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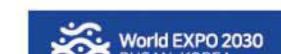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행 :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 농협은행·농축협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제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유지태 “웹툰 때부터 좋아했던 ‘비질란테’…세계적 흥행 확신”

남주혁·유지태·이준혁 주연…법망을 피한 범죄자 처단하는 한국형 다크히어로물



디즈니+ '비질란테' 제작발표회

“비질란테”는 웹툰으로 볼 때부터 관심 있게 봤던 작품이에요. 분명히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비질란테’의 주연을 맡은 유지태는 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 작품이 운명이라고 생각돼 도전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웹툰으로 읽고 나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했었는데, 몇 년 뒤에 돌고 돌아 저에게 대본으로 오게 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8일 공개되는 ‘비질란테’는 낮에 법을 수호하는 경찰대생으로, 밤에는 법망을 피한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김지용과 그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치열하게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유지태는 비질란테를 추격하는 광역수사대 팀장 조현을 연기한다.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비질란테를 잡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

그는 “조현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폭력

도 불사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캐릭터”라며 “어떻게 보면 그가 생각하는 정의가 ‘비질란테’ 세계관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인드셋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에게는 사적 제재를 가하는 비질란테가 과연 폭력에 희열을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며 “조현은 정의를 실현한다면 폭력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질란테를 추종하는 재벌 2세 조강우

은 이준혁이 맡았다.

이준혁은 “원작을 봤을 때 실제로 재현 할 수 있을까 망설여졌지만 마음을 담아서 연기했다”며 “조강우라는 인물을 연기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그 나름의 아픔에도 공감이 됐다”고 떠올렸다.

비질란테로 활약하는 김지용 역시 남주혁이 연기한다. 어렸을 때는 범죄자에게 엄마를 잃은 후 성인이 돼서 범죄자를 심판하는 사람으로, 양면적이고 복합적인 심리를 그려낸다.

군 복무 중이라서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남주혁은 영상 편지를 통해 “많은 시간 고민하며 준비한 작품”이라며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연출을 맡은 최정열 감독은 “원작 웹툰의 시나리오를 지키면서 그 장점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며 “다음 화가 기다려지는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캐릭터들의 매력과 관계성을 잘 담으려 했다”고 밝혔다.

또 “웹툰이 방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시리즈를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싶어서 인상깊은 사건 위주로 긴장을 살리는 작업에 노력을 기했다”며 “캐릭터들이 가진 신념과 목적이 달라서 그때마다 나오는 음악들에 변주를 주기도 했다”고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법이 정당하고 정의롭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비질란테의 행위들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사회가 법적으로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등의 질문들이 다양하게 논의됐으면 좋겠어요.”

/ 권도현 기자

다크비 테오, 음주운전 적발로 팀 탈퇴

8인 체제로 재편

그룹 다크비(DKB)의 테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팀에서 탈퇴했다고 소속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6일 밝혔다.

브레이브는 “지난달 30일 소속 아티스트 테오가 경찰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테오에게 음주 운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임을 전했고, 논의 후 그룹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본인 의견을 수용해 그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테오는 사건 이후 본인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브레이브는 덧붙였다.



브레이브는 “사안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통감하는 만큼, 앞으로 소속 아티스트 관리와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크비는 지난 2020년 9인조로 데뷔했지만, 테오의 탈퇴로 8인조로 재편됐다.

/ 강규호 기자

강하늘·정소민 주연 ‘30일’ 200만명 돌파

강하늘과 정소민이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30일’이 개봉 35일째인 6일 누적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배급사 마인드마크가 밝혔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범죄도시 3’(1천68만여 명), ‘밀수’(514만여 명), ‘콘크리트 유토피아’(389만여 명)에 이어 4번째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남대중 감독이 연출한 ‘30일’은 이혼을 앞둔 젊은 부부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기억을 잊으며 떨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3일 개봉했다.

개봉 시기가 다소 애매하고 ‘전박사 토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1947 보스톤’, ‘거미집’ 등 대작과 경쟁해야 해 영화에선 ‘30일’의 흥행 가능성을 낮게



꼽쳤다. 그러나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로 직행한 이후 꾸준히 흥행을 이어갔다. 개봉 12일째에 100만명을, 21일째에는 손익분기점인 160만명을 각각 돌파했다. 개봉 5주 차인 지난 주말(3~5일)에도 9만2천여 명을 동원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정지영 감독 ‘소년들’에 이어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다.

/ 박소희 기자



안현모와 라이머

라이머·안현모, 결혼 6년 만에 파경

“이혼 조정 절차 마무리”

기획사 브랜뉴뮤직 라이머(본명 김세환) 대표와 방송인 안현모가 결혼 6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6일 “(둘은) 최근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이머와 안현모는 2017년 결혼해 부부 예능 ‘동상이몽2’ 등에 출연하는 등 간간이 소식을 전해왔다.

라이머는 래퍼 출신 프로듀서로 브랜뉴뮤직을 이끌고 있으며, 안현모는 통역 사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백지영 기자

현아, 던 소속사 앤 에어리어와 전속계약



앳 에어리어는 프로듀싱팀 그루비룸이 설립한 레이블로, 던이 소속된 레이블이기도 하다. 다만 앳 에어리어 측은 “던과의 사적 사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둘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아와 던은 2016년 교제를 시작해 2018년부터 공개 열애를 이어가다 2022년 결별을 선언했다.

같은 해 둘은 함께 몸담아 온 소속사 피네이션과의 전속계약을 끝냈으며, 던은 올해 앳 에어리어에 합류했다.

/ 홍진희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JIN 삼진제약

맞다! 게보린 낫다! 게보린

통증은 빠르게 해결될수록 좋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오한, 발열까지—통증을 빠르고 깔끔하게!

증상에 맞게 복용하는 게보린만의 맞춤 케어 솔루션으로 늘 당신 곁에 함께합니다.

다양한 통증에도 역시 게보린!



생리통에 더 빠른 케어솔루션
게보린® 소프트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게보린® 클다운 정



근육통 케어 프리미엄 진통제
게보린® 틀릴렉스



iPhone 통화녹음이 필요할 땐
나만의 AI 개인비서, 에이닷

SKT의 AI는 누구에게나 있다

AI for Everyone

SK telecom

